

과학과 인문학 바탕의 <아미타경> 해설서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동봉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2만 3천원



“대하 장편소설이 인기가 좋을지 모르나 반드시 긴 문장이 심금을 울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록 대장경판으로 겨우 6쪽 남짓이지만 이 <불설아미타경>이 차지하는 경전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토록 환경 파괴가 스스럼없이 마구 자행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팔만대장경에서 그 존재적 가치를 높고 볼 때 어찌면 당연히 탑top이라는 데에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미타경은 환경의 경전입니다. 아마 <불설아미타경>을 제쳐 두고 환경 경전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경전은 단언하건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 환경의 바이블(Bible)로는 레이철 카슨(1907~1963)의 저서 ‘싸일런트 스프링’ (Silent Spring) 즉 <침묵의 봄>일 것입니다.”

동봉 스님(사진)은 우리 들에게 친근하다. 바로 SNS 포교 덕분이다. 스님은 이따금씩 좋은 경전 문구나 본인이 자연과 삶에

서 느낀 감동을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전해준다. 이 책도 동봉 스님이 100일 동안 스마트폰으로 집필하면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 연재한 것을 묶었다. 짧은 아미타경이 580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재탄생한 것 자체가 경이롭지만, 스님의 해박한 불교 지식과 필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동봉 스님은 20여 년 전 <마음을 비우게 자네가 부처야>로 이름을 알렸다. 10여 년 전에는 MBC 스페셜 ‘동봉, 킬리만자로가다’를 통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을 구호하면서 한국 불교를 아프리카에 전하는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 다가갔다.

그렇게 대중들에게 친근감을 전해준 스님이 이번에는 편편마다 특유의 유려한 필치를 더해 수필처럼 쉽고 편하게 책으로 돌아왔다. 책은 경전 읽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다가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도 담겨 있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한 아미타경의 현대적 의미를 읽는 묘미도 맛볼 수 있다. 특히 동봉 스님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이야기들은 생생한 감동으로 전해진다.

한국불교에서 불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의지처가 된 신앙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한 정토신앙이다. 정토삼부경 중 분량이 가장 적지만 정토신앙의 핵심요체를 담 아 수행의 가교이고 정토로 나아가는 안내



100일 동안 스마트폰으로 집필

수필처럼 이해하기 쉽게 써

<사연절불설아미타경> 전문도 실어

서인 아미타경은 베스트셀러 경전중 하나이다.

이 책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은 한마디로 행간마다 동봉 스님의 사색과 통찰이 빛나는 아미타경의 본격 해설서다.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폭넓은 과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집필, 일반인들도 흥미진진하게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미타경은 21세기 지구인의 공동 화두

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환경 경전임을 강조하면서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점 또한 다른 아미타경 해설서에서는 만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책은 단순한 아미타경 해설서가 아니다. 이 책까지 그동안 57권의 많은 책을 펴낸 동봉 스님의 사상과 안목이 총체적으로 녹아 있는 책이다. 또한 중간 중간 정토신앙으로 이끄는 미타인행 사십팔원, 장엄염불, 왕생계, 아미타불심대인상, 정토다라니 등을 수록했으며, 부록으로 <사연절불설아미타경> 전문도 실어 독송하기 쉽게 편집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동봉 스님은?

강원도 횡성서 태어나 1975년 불문에 귀의했다. 해인사승가대학,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원 등에서 공부했다.

법명은 정후(正休)이며, 자호는 일원(一圓), 동봉(東峰)은 법호이다. 아프리카 이름은 기포킵(Kipoo)으로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서 52개월간 머물며 필친 말라리아 구제 활동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한국불교인으로서 최초로 아프리카에 ‘학교법인 보리가람스쿨’을 설립했다. 또한 탄자니아 수도 다레스살람에 매일 학교부지 35에이커와 킬리만자로 산기슭에 개척한 부처님 도량 사찰부지 2.5에이커를 학교법인과 함께 조계종단 산하 ‘이름다운 동행’에 기증했다. 현재 조계종단서 ‘보리가람농업기술고등학교’를 건립 중이며, 곤지암 우리절 주지로 글과 법문, 페이스북 등 SNS로 법을 전하고 있다. 저서 및 역서로 <영상이 도라 이르지 마라> <일린다왕릉경일원곡> 14책 및 50여 권이 있다.

부처님 만남은 고통 해결을 위한 선물

붓다와 39인의 제자이야기

한결을 더 펴냄 | 이자람 지음 | 1만5천원



이 책은 부처님의 제자들 이야기다. 비구 19명, 비구니 9명, 우바새 6명, 우바이 5명, 총 서른 아홉 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붓다의 제자들 중 잘 알려진 인물 가운데서도 특히 그 삶이나 부처님과의 만남이 인상적인 이들에 대해, 주로 초기 불교 문헌 및 그 주석서에 기술된 전승에 근거해 이야기를 구성했다.

권력욕에 눈멀어 부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자의 뼈저린 후회, 풍요로운 삶 속에서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절규, 불을 섬기며 제식의 효능을 맹신한 종교인들의 자만, 질긴 애욕의 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고통 받는 가엾은 여인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이들의 고뇌……. 애절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넘쳐난다. 이들은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우리는 지금도 붓다를 만나고 있다

부처님과의 만남은 고통의 끝을 위해 준비된 선물이었다. 부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애절하고 안타까운 삶은 오히려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통인으로 작용하며, 지혜와 평안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부처님과 이들의 만남은 거기서 끝나지 않

는다. 이들은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부처님 법의 그늘을 넓혀 간다.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수행자의 깨달음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 끝없이 이어져 간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 과연일까? 사람의 삶이란 게 2,600여 년 전의 인도나 21세기의 현대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건 없을 것이다. 부와 명예에 대한 탐욕,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애착, 증오하는 것에 대한 분노 등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분명 우리 주변에도 붓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붓다를 만나고 있다. 또 우리도 붓다가 되어 세상을 밝혀 가야 한다.

부처님 제자 39명 이야기

초기불교 문헌 등에 근거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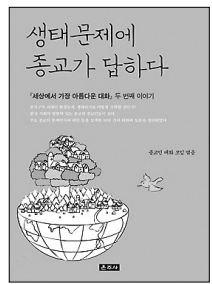
저자는 “4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전법기간동안 인도 각지를 쉬임 없이 유행한 부처님의 궤적과 그 과정에서 만난 제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즐거웠다”며 “부처님을 도와 교단을 성장시켜 나간 10대 제자의 활약상을 볼 때면 꺾인 감동이 밀려들었고, 소설 속이나 등장말만한 기구한 삶을 살며 고통받던 여인들이 부처님을 만나 고통의 뿌리를 제거해 가는 과정을 들여다볼 때면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종교적 성찰로 바라본 환경 및 생태문제

생태문제에 종교가 답하다

종교인 대화모임 엮음 | 운주사 펴냄 | 2만 3천원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영향력 있는 주요 종교의 신앙인이자 학자들이 모여 진행하는 종교간 소통을 위한 종교인 모임의 대화 기록이다. 앞서 나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각자 다른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기록이라면, 이번 책은 우리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과제인 환경 및 생태문제에 대한 종교적 성찰을 담고 있다. 주제와 관련된 각 종교의 주요 저서와 논문들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10여 년간 진행돼 온 대화와 토론을 생생하게 정리 기록한 것으로, 주요 종교의 환경 및 생태관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안들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측면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인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주교에 속한 종교인들이 2004년부터 10여년 동안 진행한, 씨든연구원 ‘종교인 대화 모임’의 발제문과 토론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이 ‘모임’에는 주로 자신의 종교에 충실한 신앙인이면서 학문적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 종교인들이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 종교 중심의 편협함에서 벗어나 서로가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할 수 있었고, 이 책은 그 10년의 결과물이다.

현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환경문제이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환경파괴 문제는 한 지역, 한 국가만의 현상이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거나 파괴되고 있는, 혹은 파괴될 예정인 자연환경은 부메랑이 되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가나 기업, 시민단체나 종교 등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책은 그중에서도 주요 종교들의 관점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즉 불교, 유교, 도교, 그리스도교 등 주요 종교의 자연과 생태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론적 토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유의미성과 실천성을 가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각 종교의 특성은 물론이고 이들 종교 사이의 차이점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에서는 현대 생태학 담론 중에서도 대표적인 논문인 클레어 파머의 <환경윤리개관>과 폴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윤리>를 중심으로 그간의 생태적 담론에 대해 토론했는데, 이를 통해 서구학자들의 메타윤리 학적인 접근이 지닌 한계점을 확인하고, 결국 생태문제는 철학적 사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각 종교전통이 지닌 자연에 대한 규범적 윤리를 강조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생태학과 불교의 대화를 주제로, 인도불교, 남방불교, 일본불교의 관점에서 불교와 생태학의 이론적, 방법론적인 쟁점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특히 불

교는 연기적 세계관을 지녔기 때문에 가장 생태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단지 거기에만 만족하고 만다면 불교가 과연 생태윤리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점에 강한 문제 의식도 제기되었다.

제3장에서는 초기 유교로부터 신유학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전반적인 사유를 통한 환경윤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유교의 생태적 관점은 그 논의의 중심에 인간의 책임문제가 있으며, 이를 감응문제와도 연관 지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4장에서 다른 생태학과 도교의 대화는 <도교 생태학: 내면의 변화로 초대> <음부경의 삼재상도사상> <태평경의 도교적 중화개념>이라는 세 논문을 중심으로, 특히 도교적 수행을 중심으로 토론한다.

제5장 ‘생태학과 그리스도교의 대화’에서는 켈리 맥케이의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과 토마스 베리의 <위대한 과업>을 중심으로 토론하는데, 특히 맥케이의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면 신교전주의 경계도 탈에서 벗어나 생태 경제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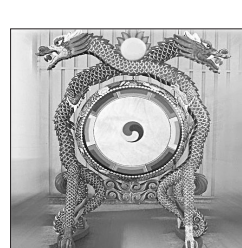
책속의 밑줄 긋기


“머리를 맞대고 모의한 끝에 두 사람이 생각에 낸 부처님 살해 계획은 이런 것이었다. 먼저 한 사람이 가서 부처님을 암살하고, 이어 두 사람이 앞의 암살자를 죽이고, 이어 네 사람이 앞의 두 사람을, 이어 여덟 사람이 앞의 네 사람을, 이어 열여섯 사람이 앞의 여덟 사람을 죽인다. 마가다 국에서 이미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던 부처님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질 경우 벌여질 사태를 감당하기 두려웠던 아자타삿투와 데와뎃타가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생각해 낸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패하고 만다. 최초의 한 사람이 부처님을 살해하고자 다가갔을 때 그는 그만 부처님의 위력에 부들부들 떨며 온몸이 경직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부처님은 그를 위해 법을 설해 주었고, 그는 죄를 뉘우치며 우바새가 되어 버렸다. 그를 찾기 위해 갔던 다른 두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교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마지막 열여섯 명까지 모두 뉘우치고 우바새가 되어 버린 것이다.”

“왕족의 집안에서 태어나 누구나 부러워하는 미모로 한 나라의 왕비까지 된 여인 케마. 아름다운 미모와 권력, 부에 대한 애착을 끊는 일이 어찌 쉬웠을까마는, 그녀는 부처님과의 만남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헛된 집착을 벗어던지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그녀의 버림이기에 더 위대하다. 다듬고 다듬으며 감추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추하게 늙어 가는 이 퍼질 경우 벌여질 사태를 감당하기 두려웠던 아자타삿투와 데와뎃타가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생각해 낸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패하고 만다. 최초의 한 사람이 부처님을 살해하고자 다가갔을 때 그는 그만 부처님의 위력에 부들부들 떨며 온몸이 경직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부처님은 그를 위해 법을 설해 주었고, 그는 죄를 뉘우치며 우바새가 되어 버렸다. 그를 찾기 위해 갔던 다른 두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교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마지막 열여섯 명까지 모두 뉘우치고 우바새가 되어 버린 것이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僧家秘傳風水學講義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천문과 지리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재가 불자를 위한 방편지학

- 개설시기 : 2015년 3월, 둘째 목요일
- 시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소 : 서울시 강남역 교보문고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재 : 유 리 자 (유리자동서) 옥 룡 자 (무감편) 무학대사 (동사심전) 등 양택과 음택 중점 강의

· 관심있는 스님들께는 추가 혜택있음.
· 처사님들 강의는 따로 합니다.
·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전화 010-5559-1529

예뵙 합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르기 어렵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관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연배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처명)